2018년 10월 13일 지방직 7급: 정답과 해설

1. 답: ②
㉠ 성씨 뒤에 호칭일 때 띄운다: 김 양, 김 씨, 김 군, 김 과장
㉡ 해당 성씨 전체일 때는 붙인다: 안동 권씨, 전주 이씨
<해설>
① 간(間): 거리, 간격을 뜻할 때 의존명사로 띄운다: 부모와 자식 간
③ 성과 이름(시호, 별명도 이름이다)은 붙인다: 이충무공
④ 해, 섬, 강, 산, 산맥, 평야, 고원 등은 모두 붙인다: 카리브해, 템스강
<주의> 띄어쓰기 개정 확인

개정 후: (O)	틀린 표기 (×)
그리스어, 그리스인, 게르만족, 발트해	그리스 어, 그리스 인, 게르만 족, 발트 해
나일강, 에베레스트산, 발리섬	나일 강, 에베레스트 산, 발리 섬
우랄산맥, 데칸고원, 도카치평야	우랄 산맥, 데칸 고원, 도카치 평야

2. 답: ③
소매 깃: 합성어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만약 이게 합성어라서 사이시옷을 쓴다면 된소리 발음이 나야 하는데, [소매낃]이란 발음은 하지 않는다. '소매 깃'은 띄워서 써야 한다.
<해설>
① 차지다=찰지다: 끈기가 있다. ② 이쁘디이쁘다=예쁘디예쁘다: '디' 어미가 들어가면 붙여서 쓴다. ④ 돋구다: 안경 도수를 높이다. **<주의> 돋우다: 입맛을 돋우다. 분위기를 돋우다: 이런 경우에는 '돋구다'를 절대 쓰지 않는다.**

3. 답: ②
윗옷[위돋]: 윗도리를 말한다. 순우리말+순우리말로 된 경우이지만 보기의 발음 조건에는 해당이 없다. <주의> 웃옷[우돋]: 바깥에 걸치는 외투 종류를 말한다. 이 경우는 '웃'이 접두사이고, 파생어다. 합성어가 아니므로 '웃옷'을 들어간 'ㅅ'을 사이시옷으로 보면 안 된다.
<해설>
① 냇가: 순우리말+순우리말 합성어에서 [내까]로 [1]항 된소리 발음 조건이다.
③ 훗(後)+날: 한자어+순우리말 합성어에서 [훈날]로 [2]항의 조건이다.
④ 예삿(例事)+날: 한자어+순우리말 합성어에서 [예산날]로 [2]항의 조건이다.

4. 답: ②
이 문제를 푸는 초점은 보기 지문에서 핵심 문장의 위치를 정확히 밑줄 긋는 것이다.
'그래서' 뒷부분이 핵심이다. 역사드라마의 기능(역할)을 ㉠ 등장인물과 현재 시청자들의 대화 유도 ㉡ 드라마를 주제로 시청자들이 사회적 담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 부분과 가장 비슷한 항목을 골라야 정답이다.
<해설>
① 역사드라마가 현재를 지향한다는 부분을 초점으로 삼았다. 핵심을 잘못 짚었다.

③ 본문에 작가가 강조하는 역사적 교훈이란 내용이 전혀 없다. 이건 아예 답에서 제외한다. 그럴듯한 문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문장을 고르면 독해는 망한다. 본문의 핵심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④ 부정적 평가와 악인이라는 내용이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5. 답: ③

③ 끓는	끌는: 자음군단순화 <ㅎ탈락	끌른: 유음화 <대치(교체)현상	탈락(0), 대치(0)
① 값진	갑진: 자음군단순화 <ㅅ탈락	갑찐: 된소리현상 <대치(교체)현상	탈락(0), 대치(0)
② 밖과	박과: 끝소리 현상 <대치(교체)현상	박꽈: 된소리현상 <대치(교체)현상	대치(교체)현상만 (0)
④ 밭도	받도: 끝소리 현상 <대치(교체)현상	받또: 된소리현상 <대치(교체)현상	대치(교체)현상만 (0)

6. 답: ③
순서 배열은 보기를 보고 걸러내는 게 1단계다. (가)와 (나)에서 범위가 더 넓은 주제인 (나)가 일반적 화제라서 1단락이다. (나)의 중심 문장은 '미술 작품 속의 다양한 동물'이다. 그 뒤를 이을 문장은 (가)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의 구체적 분류이다.

7. 답: ③
신경림 <농무>의 주제는 '무너져 버린 농촌 공동체의 울분'이다. 한 개인의 힘으로 무너진 농촌 공동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작품이다. 이와 가장 비슷한 인물은 '임꺽정'이다.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나 좌절한 인물이다.

8. 답: ④

④ 一切唯心造	한 일, 모두 체, 오직 유, 마음 심, 만들 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① 以心傳心	로써 이, 마음 심, 전할 전, 마음 심	마음으로 저절로 통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② 心機一轉	마음 심, 기회 기, 한 일, 돌다 전	마음을 새롭게 먹다.
③ 人心不可測	사람 인, 마음 심, 아닐 불, 가할 가, 재다 측	사람 마음은 측정할 수 없다.

<주의> **수심가측(水深可測) 인심난측(人心難測):** 물의 깊이는 헤아릴 수 있으나, 사람 마음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 속담으로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과 같다.

9. 답: ④
경필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 그러지 말라는 듯 옆에서 툭 치는 경필' 여기뿐이다. 속이

깊다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으나, 참을성이 많다, 포용력이 있다는 것은 알기가 힘들다.
<해설>
① 우진의 워커 끈을 매주는 모습과 생일 선물 주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② 진지한 표정이다가 선물로 방귀를 뀌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③ '뭔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10. 답: ④
박 위원의 마지막 말이 '두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참여자 의견을 경청'한다는 것이 맞다. 또 명절 귀성길에 시행했던 고속버스 전용 차로제의 효과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설>
① 사회자가 '주제 전환'하는 부분이 없다. 이 글의 주제는 교통 체증 해소 방안이다.
② 김 국장은 승용차 10부제를 주장한다. 자신의 주장은 말하고 있으나 상대의 주장을 '수긍'하지 않는다. 윤 사장의 주장에 오히려 '어려움을 같이 감수해야 한다'는 말로 승용차 10부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윤 사장은 승용차가 모두 상업용일 수 있다고 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11. 답: ④
하늘과 땅은 중간 단계가 없다. 절대적 반의어 관계다. 공중도 하늘에 속한다. 지하도 땅의 일부분이다.
<해설>
① 몰상식(沒常識)은 '아니다/없다'는 뜻의 '몰(沒)' 접두사가 붙어서 반의어를 만들었다.
② 남자와 여자는 절대적 반의어 관계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性)은 없다.
③ 오다와 가다는 방향, 이동성에서 반의어다.

12. 답: ②
주십시오: 종결어미(문장이 끝날 때 쓰는 어미)는 '오'로 써야 한다.
(예) **오십시오. 이것은 내 물건이오. 제 책이 아니오.**
<주의> 보조사 '요'

㉠ 종결어미 뒤	기차가 참 빨리 가지**요**. 새싹이 돋는군**요**. 많이 아프던가**요**?
㉡ 체언 뒤	마음**요**. 서쪽**요**.
㉢ 부사어 뒤	어서**요**. 빨리**요**.
㉣ 연결어미 뒤	합격하면**요**.

<해설>
① 민국+이(접사)+이에요/이어요= 민국이예요/민국이여요
③ 반듯이: '자세를 단정하게'의 뜻이다. (예) **반듯이** 앉자.
<주의> 반드시: '꼭'이란 뜻이다. (예) **반드시** 합격한다.
④ 잇달다=잇따르다: '뒤를 이어 따르다. 일이 이어 발생하다'에서 같은 뜻이다.

잇달다	잇달+ㄴ/니/는= 잇단, 잇다니, 잇다는	ㄹ탈락 규칙용언
잇따르다	잇따르+ㄴ/니/는= 잇따른, 잇따르니, 잇따르는	으탈락 규칙용언

13. 답: ①

① 復活(부활)	다시 부, 살다 활	復命(복명)	회복할 복, 명령 명
② 樂園(낙원)	즐길 낙(락), 뜰 원	樂勝(낙승)	즐길 낙(락), 이길 승
③ 降等(강등)	내릴 강, 등급 등	下降(하강)	아래 하, 내릴 강
④ 率先(솔선)	이끌 솔, 앞설 선	引率(인솔)	끌다 인, 이끌 솔

<참고> 복명(復命):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함

14. 답: ①
문장에서 화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보조사 '은/는'을 쓴다.
(예) 이 책**은** 내가 골랐다. 음악**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① ~ 사람은 관리자가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주술 구조로 봐서 문제가 없다.
<해설>
② '아마'라는 부사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쓴다. 여기서는 부사어와 서술어 호응이 맞지 않는다. '아마 ~ 되었을까'는 쓸 수 없다.
③ '와/과' 접속구조의 오류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④ 서술어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다.'로 잘라야 한다.

15. 답: ④
<사동과 피동의 구별>

사동문	목적어가 있고 '~게 하다'의 뜻이 된다.	책을 보이다: 보게 하다
피동문	대개 목적어가 없고 '~지다,되다,당하다' 뜻이다. 영어의 수동문 형태다.	산이 보이다: 보아지다.

④ 보따리가 들리다	들어지다 (~에 의해서)	사물이 주어가 되고 누구에 의해 들어지다: 피동이다.
① 풀부터(=풀을) 뜯기다	풀을 뜯기다=뜯게 하다	목적어에 대해 '~게 하다'이므로 사동이다.
② 종이비행기만(을) 날리다	비행기를 날리다=날게 하다	목적어에 대해 '~게 하다'이므로 사동이다.
③ 반지마저(=반지를) 보여	반지를 보여=보게 하다	목적어에 대해 '~게 하다'이므로 사동이다.

16. 답: ④
본문을 요약하자: ㉠ 군산은 식민 도시, 옥구는 식민 농촌이었다. ㉡ 1910년 이전 이미 10여 개의 일본인 농장이 세워졌고 30년대에는 15-16개로 늘었다. ㉢ 1930년 일본인은 전북 경지의 1/4을 차지했고 옥구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 땅이었다. ㉣ 결국 일인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조선인은 산비탈 흙구덩이에 몰려 사는 처지였다.

이 글은 구체적 수치와 연도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해설>
① 대상 논증(논리적 증명)의 글이 전혀 아니다. ② 반어적 수사: 표리부동한 말이 나와야 반어적인데, 그런 표현이 없다. ③ 풍자란 비판적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는 수법인데 이 글에서는 전혀 없다. 물론 대상을 우스개로 만드는 해학도 없다.

17. 답: ③
(가)에서 '근대적 연애'와 '전통 사회 남녀 관계' 대조를 정확히 정리해야 답이 쉽게 나온다.

근대적 연애	전통 사회 관계
㉠ 자기 의사를 중시하는 대등한 개인의 만남 ㉡ 둘 사이에 타오르는 감정의 비중 ㉢ 상대방의 모습이 불러일으키는 열정이 중요함	㉠ 가족 사이의 약속 ㉡ 상대방에 대한 의존 가능성 ㉢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비교: 외적 기준이 중시됨

③은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비교: 외적 기준이 중시되는 전통 사회의 남녀 관계다. '열정'은 근대적 연애의 요소다.

18. 답: ④
2단락의 끝부분에 '수증기는 그 양을 생태계가 조절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나온다.
<해설>
① 2단락: 이런 기체들은 지구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② 1단락: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복사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어 생물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③ 2단락: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19. 답: ①
본문에서는 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과 겨울에 눈이 내려 강산을 덮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면앙정가>는 조선 전기 가사인데, 최초의 가사인 정극인의 <상춘곡>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 면앙정가에는 사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①은 <상춘곡>의 한 대목이다.
해석: 초가삼간을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 울창한 사이에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해설>
② 관동별곡의 끝부분이다. 해석: 이 술 가져다가 온 백성에게 고루 나눠 만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서야 다시 (신선을)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애민사상, 선우후락(先憂後樂) 정서가 나타난 부분)**
③ 속미인곡의 한 대목이다: 해석: 초가집 처마 찬 자리에 한밤중에 돌아오니 벽에 걸린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해 밝았는가(독수공방을 한탄하는 것)
④ 노계 박인로의 <누항사>: 해석:길게 탄식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겁게 듣던 농부의 노래도 흥이 없이 들린다.

20. 답: ①

이 문제는 일단 보기 선지 4개를 먼저 읽고 간단히 표시해 둔다. 그리고 본문에서 3, 4, 5단락에 집중한다. 대조적 내용 확인 문제이므로 대조적 대상에는 각각 다른 부호로 표시한다. 보기 선지에 나오지 않은 정보에는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간다. 독해문제에서 물리 현상을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나와 있는 정보 관계 확인에 집중한다.

4단락에서 순풍이 불 때 요트가 나가는 원리를 설명한다. 풍하범주에서 총합력은 앞으로 추진시키는 전진력과 옆으로 밀리게 하는 횡류력으로 분해된다. 횡류 방지 장치에서 횡류를 방지하면서 전진력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간다: 배가 나아가는 것은 '전진력'이다. 횡류를 방지해야 배가 똑바로 나갈 수 있다.

5단락에서 역풍이 불 때도 총합력이 생긴다. 이것도 순풍의 경우와 같이, 전진력과 횡류력으로 분해된다. 횡류력은 횡류방지장치로 상쇄된다. 따라서 요트는 전진력으로 나아간다.

결국 순풍이든 역풍이든 '전진력'으로 나아간다. 횡류력은 방지장치로 상쇄해야 배가 나갈 수 있다.

<각 단락의 요지>

단락	중심문장	설명
1	읽을 필요 없다! 딩기는 바람으로 가는 요트다.	화제제기이므로 읽지 말고!
2	읽을 필요 없다! 요트가 맞바람에도 전진하는 것은 '지브세일'에 비밀이 있다.	보기선지에 '지브세일'이 없다. 읽지 말자.
3★	풍하범주: 풍압이 추진력 풍상범주: 양력이 중심	여기서부터 정확히 동그라미, 세모로 대조되는 것에 표시한다.
4★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 순풍 주행: 풍하범주: 풍압이 추진력	순풍일 때의 설명이 4단락이다.
5★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역풍 주행: 풍상주행: 양력이 중심	역풍일 때의 설명이 5단락이다.

<해설>

② 4단락에 나온다.

③ 3단락에 있다.

④ 3단락에서 풍압이 주가 되는 풍하범주, 양력이 주가 되는 풍상범주를 확인하고 나서 4단락 처음과 5단락 처음에 적용하면 된다.